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다문화집단과의 현실갈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27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 등의 배경변인과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다문화집단과의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에서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집단과의 현실갈등인식이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는 경제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현실갈등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지각된 차별감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집단,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571).

† 교신저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기초연구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Tel: 044-415-2117, E-mail: yangkm68@hanmail.net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많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사회 구성원의 변화이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로서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해 왔던 한국사회가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전 지구적인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기존의 한국 원주민이 아닌 이주배경을 지닌 집단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청소년, 유학생 등 다양한 집단이 한국사회에 거주하게 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사회의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다. 2015년 5월 말 기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28,054명으로, 2009년 이후 연도별 입국자 수가 조금씩 줄어든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연간 천 여 명 이상씩 남한으로 꾸준히 입국하고 있고(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라는 변화를 가져온 외국인주민¹⁾도 2015년 7월 기준 174만 1,91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행정자치부, 2015).

'단일민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계 이주배경을 지닌 다문화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지만, '이주'와 '적응'의 시각에서 보자면 같은 '이주민집단'으로 범주화하기도 하여, 국내 이주배경의 소수집단에 대한 지원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집단과 같은 범주로 다루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다른 이주배경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한사회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주자들과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권수현, 2011).

1) 행정자치부 기준 외국인주민의 범주에는 외국인근로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기타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집단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과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관련자, 통일운동가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윤인진, 채정민, 2010).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같은 민족이고 통일이 되면 새로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문화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통일부, 2012). 이러한 생각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여타의 다른 이주자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생각의 근거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집단과 달리 남한에 입국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국민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착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지원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지도, 고용촉진지원, 주거지원, 공동생활지원(무연고청소년의 경우), 거주지 생활안내 및 신변보호, 각종 교육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정착지원금도 주어진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간 위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정책 및 지원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우위에 있고, 다음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 그리고 해외동포, 외국인노동자 등의 순이라는 것이다(이종두, 백미현, 2014). 이는 북한이탈주민은 단일민족의 개념에서 볼 때 남한주민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본인들이 미래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비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Ziemek, 2009).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는 다소 이중적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소수집단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고, 단일민족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 차원에서는 다른 소수집단과 유사한 범주로 인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심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남북한 갈등과 체제경쟁이 극심했던 1980년대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시 귀순용사로 불리며 국가영웅의 대우를 받았고 많은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등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인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체제경쟁이 의미 없어진 지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생활고로 인하여 탈북을 감행하고 있고, 탈북자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 난민 또는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고경빈,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윤인진과 송영호의 연구(2012)는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거나 노동력 제공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의 수준은 5점 척도 상의 중간값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거나 실업, 일탈 등 사회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거주지의 청결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범죄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은 중간값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수용도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통계개발원, 2012)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조건 수용’의 의견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선택적 수용’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통합수준이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로,

2010).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 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집단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위치는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윤인진과 채정민의 연구(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성애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감이 먼 집단으로 나타나 장애인, 선진국출신외국인, 개발도상국출신외국인, 국제결혼이주여성보다도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김혜숙 등의 연구(2011)에서도 국내 소수집단(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과 한국인에 대한 감정온도,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을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태도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온도는 이주노동자집단과 함께 가장 낮았고, 사회적 거리감은 전체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집단고정관념 중 따뜻함 차원에서 조선족과 함께 가장 낮고, 유능함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와 한국인에 비해 낮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청소년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 국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같은 민족이고 외국계 이주민과는 차별적인 집단이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고 더 많은 지원과 우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적으로는 외국계 이주민과 같은 범주로 묶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정도는 다른 외국계 이주민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고 인식하거나 제한된 자원을 놓고 다른 소수집단

과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더더욱 민감해 질 수 있는 문제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나아가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감소하게 될 수 있다.

향후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도 증가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주 배경을 지닌 소수집단 중 민족차원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외국계 이주민 집단간의 갈등은 발생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통일 독일의 경우 통일후 동독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이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적대감, 더 심하게는 테러로 이어진 사례들을 살펴 볼 때(이기식, 2008), 미래 통일된 한국 사회에서 북한출신자들이 통일독일의 동독출신자들과 같은 심리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비록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년 내에 닥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이들의 적응 및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 집단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간 갈등 해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실갈등(Realistic Conflict) 인식의 영향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은 집단간 적대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이다(Michener, DeLamater, & Schwartz, 1986).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집단간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는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됨에 따

라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Sherif, 1966). 사실상 현실갈등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Aronson & Gonzalez, 1988; Olzak & Nagel, 1986; Cornders, Lunnens & Scheepers, 2003; Wimmer, 1977)들은 현실갈등이론을 사회의 주류집단과 소수집단간의 관계에 적용하였다. 즉, 사회적인 변화로 주류집단이 새로이 등장한 소수집단과 경쟁관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주류집단이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자원을 새로운 집단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Schmitt & Maes, 2002), 실제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이 동일한 지위에 있고 이득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외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을 인식하게 되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게 되고, 소외된 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Ellemers & Bos, 2006). 따라서 사람들은 외집단의 이익이나 상대적 지위를 높이는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Esses, Jackson, & Armstrong, 1998; Jackson, 1993). 특히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고 지각할 경우 합리적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포, 분노, 화, 욕구좌절 등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nover & Feldman, 1986).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갈등을 지각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계 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실갈등인식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2012)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줌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향후 이민자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

며,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호, 2012). 이러한 현실갈등인식은 이주배경의 다문화집단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는 24.5%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약 67.8%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만일 취업상황에서 남한주민과 경쟁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우대나 특별한 차별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병로, 2010).

좀 더 나아가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몇몇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현실갈등인식은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선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가정 자녀, 조선족 등 혈연상 위계의 수준에 따른 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민족정체성, 권위주의적 공격성, 현실갈등 인식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현실적 갈등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계민(2010)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현실갈등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현실갈등인식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인들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현실갈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안녕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

가 낮아졌지만 현실적 갈등인식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집단에 대한 인식에 현실갈등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김혜숙 등의 연구(2011)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지니는 동화주의적 신념이 높아질수록 현실적 이득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다문화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현실갈등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갈등은 반드시 주류집단이 새로이 등장한 소수집단에 대해서만 느끼는 심리현상이 아니라 같은 소수집단 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자원을 빼앗아 가는 데 대하여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Coenders et al., 2003), 현실적 갈등인식에 의해 편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외집단이 자신과 유사한 직무관련성격특성과 능력을 지녔다고 여길 때였고, 외집단의 유사성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평가한 후에는 편견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연구(Zatate, Garcia, Garza & Hitlan, 2004),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군석, 한덕웅, 2002) 등은 결국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현실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다면 같은 이주배경을 지닌 소수 집단간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라틴계 인구의 증가로 흑인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과 그로 인한 갈등관계 등에서 드러나고 있고(Baker & Binham, 1991), 향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소수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바(Anderson,

1992),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한 지위 및 계층에 속한 소수집단간에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비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의 영향

지각된 차별감이란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위치, 비만, 성적지향 등 개인이 지닌 속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취급된다는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특히 특정한 집단이 인종 또는 민족특성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불공평한 지위를 지니는 경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Sampson, Morenoff, & Raudenbush, 2005), 현대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공식적인 제도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수준의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ett et al., 2005; Chae & Walters, 2009; Corning, 2002; Gee & Paradies, 2006; Gee, & Walsemann, 2009; Seaton & Yip, 2009; Szalacha et al., 2003; Williams, 2005).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주민과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지각된 차별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특히 인종적 소수집단(Karlsen & Nazroo, 2002), 이민자(Vedder, van de Vijver, & Leibkind, 2006), 난민 (Noh, Beiser, Kaspar, Hou, & Rummens, 1999) 등의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속성은 다민족 국가에서 인종적으로 다르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집단에 대한 그것과 유사할 수 있다.

차별감은 정신건강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차별감을 지각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을 저해하고(Crocker & Major, 1989; Croker, Cornwell & Major, 1993;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Barry & Grilo, 2003;

Fischer & Shaw, 1999), 전반적인 안녕감을 감소시키며(Gee & Walsemann, 2009), 대인관계(Kaiser & Miller, 2001)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존심이 저하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ost & Banaji, 1994). 또한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Paradies, 2006),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scoe & Richman, 2009). 이는 아마도 지각된 차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기제(Mellor, 2004; Verkuyten & Brug, 2003) 및 생리적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Brondolo, Rieppi, Kelly, & Gerin, 2003), 그 결과 심장병, 비만, 약물남용 등 신체적 증상 및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Brondolo et al., 2008; Cardarelli et al., 2010).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차별을 지각하는 경우도 역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각된 인종차별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Bodkin- Andrews, Seaton, Nelson, Craven & Yeung, 2010; Wong, Eccles, & Sameroff, 2003), 약물사용 및 심리적 스트레스, 마리화나 사용 등과 관련이 있었고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Phillips, et al., 2014). 이러한 결과들은 현실갈등인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별감을 지각할수록 인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제도적 차별 보다는 대인관계 장면에서의 차별이 신체적 건강 및 우울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Juan, 2013), 인생의 중요한 어느 시점의 일회적인 차별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겪는 차별이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yalona & Gum, 2011).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감에 대한 연구로 조영아(2011)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서구의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차별감의 내용 중에서도 ‘모욕을 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경험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장면이 구직활동 장면이고(윤인진 외, 2006) 편견과 차별을 강하게 느끼는 영역이 직장에서의 차별이라는 연구결과(장명선, 이애란, 2009)들을 고려해보면, 제도적 차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원주민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지각이 북한이탈주민의 더 큰 심리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될 경우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비판과 불만이 커지게 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오히려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Crocker & Major, 1989; Turner & Brown, 1978)는 점에서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통일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통일 독일의 경우 학력이 낮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즉, 서독으로 이주하여 더 좋은 직장을 지니지 못하고 동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실업 등 자신이 처한 현실의 타격을 외부로 돌려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적 행동을 하게 된 현상이 발생한 사례(이기식, 2008)를 생각해 볼 때,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로부터 차별감을 느낄 경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하고 심리·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시에, 외국계 이주집단에 대해 그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67.6%)는 남한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남한생활

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꼽은 내용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5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41.9%)’라는 응답이었다(남북하나재단, 2014).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보다는 편안한 상황이지만 남한사람들로부터 느끼는 편견과 차별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차별감이 이주민의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

지금까지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실상 이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지각된 차별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역동을 부분적으로 집단지위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지위이론(group position model)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차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한 사회에서 개인이 지니는 자격(entitlement)에 대한 신념이 성과에 대한 사회적 분배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적, 평가적, 행동적 반응에 중요한 심리적 매개변인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Major, 1994; 안미영, 김혜숙, 2003 재인용). 즉,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자격(entitlement), 지각된 경쟁, 위협 등과 같은 집단의 이익이 집단간 갈등의 결정적인 요

인이라고 본다. 이 때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와 그 집단에 사회적으로 부여된 특권(privilege)은 그 집단의 객관적인 지위가 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그럴만한가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집단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Minescu & Poppe, 2011). 따라서 자신이 어떤 자원이거나 성과에 대해 그 것을 가질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지만, 자신과 비교되는 사람의 성과가 정당하다고 평가하게 되면 자신이 성과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안미영, 김혜숙, 2003). 그런데, 이러한 지위정당성 요인이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2004)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지위가 낮을수록, 지위에 대한 정당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사회에서 지위의 개인적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인 지위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은 차별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신념이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민족정체성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다른 소수집단과는 차별되는 지위를 지닌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문화집단보다 덜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며, 다문화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고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 갈등을 느끼는 동시에 다문화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그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지녀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다문화집단과 갈등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차별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과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외국계 이주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남한주민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의식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향후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점점 더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소수집단간 인식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기초단계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남한사회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다문화집단과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경우,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가 다문화집단과 비교하여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실갈등을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차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현실갈등을 인식하는 것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때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갈등인식이 지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주요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성별, 연령 및 남한거주 기간에 따라 남한에서 접촉한 주요 대상 및 생활환경 등 경험의 질과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험에 따라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한 후 세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남한거주 기간이라는 변인은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이고, 거주기간에 따라 다문화현상 및 다문화집단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에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다.

연구과제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과제 3.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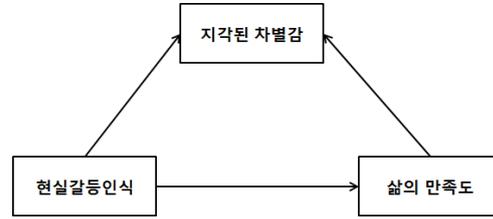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 지각된차별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연구과제 4.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의 탈북자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 중 남한 거주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는 사례를 성별, 연령별, 탈북 및 입국년도별로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만 19세부터 69

표 1. 조사참여자의 배경적 특성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남자	122(44.7)	연령집단	20대	76(27.9)
	여자	151(55.3)		30대	63(23.2)
남한 거주기간	3년 이하	92(33.8)		40대	78(28.7)
	3년 1개월-5년	107(39.3)		50대 이상	55(20.2)
	5년 1개월-7년	35(12.9)	탈북 전 교육수준	소학교 졸업 이하	35(12.9)
	7년 1개월-9년	24(8.8)		고등중학교 졸업	159(58.3)
9년 1개월 이상	14(5.1)	2년제 대학 졸업		43(15.9)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5(12.9)	

세까지의 27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3월~4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122명(44.7%), 여자는 151명(55.3%)으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6명(27.9%), 30대가 63명(23.2%), 40대가 78명(28.7%), 50대 이상이 55명(20.2%)으로 전 연령층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었다. 탈북 전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159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2년제 대학 졸업이 43명(15.9%), 소학교 졸업이하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각각 35명(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수입의 경우는 한 달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평균이 130.07만원이었고, 표준편차는 94.11만원이었다. 이들의 남한거주 기간은 8개월부터 19년 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3년 이하 거주경험자가 92명으로 전체의 33.8%였고, 3년 1개월부터 5년 이하 거주자가 107명(39.3명), 5년 1개월부터 7개월 이하 거주자가 35명(12.9%), 7년 1개월 이상 9년 이하가 24명(8.8%), 9년 1개월 이상자가 14명(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표집된 조사 대상자들이 다문화집단에 속한 각 집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문화집단이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등을 의미한다는 것과, 다문화집단에 포함된 각 집단의 의미를 기술한 후 조사원이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 조사원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도록 하여 최대한 설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조사원은 북한관련학과 석사과정 및 졸업생들로 구성되었고, 사전에 설문문의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현실갈등인식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구성을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연구분야의 전문가인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박사 각 1명씩 총 3명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을 구성하고 최종 합의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감안하여 설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대한 포함하되 문항수는 최대한 줄이는 원칙하에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설문이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쉽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양계민, 2015). 문항은 총 다섯 문항이었는데, 황정미 등(2007)이 사용한 종족적 배제주의 척도 중 이주로 인한 위협에 대한 문항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문항을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배경 이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그 외에는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줄어든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다문화배경 이주민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등은 연구자들이 측정개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이 산출되었고,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85 부터 .40까지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Sandhu(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의 36문항을 이승중(1996)이 번안한 척도를 이소래(1997)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을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 측정을 위해 선정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회에서 한국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남한 사람들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북한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6$ 이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5)의 삶의 만족도 문항 중 김신영 등(2006)이 수정 보완한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고,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4$ 였다.

결 과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연구과제 1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세 변인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세 변인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먼저 살펴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성별, 연령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현실갈등인식의 전체 평균 수준은 척도의 중간값 보다 낮았고,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는 척도의 중간값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과제 2와 관련하여 남한거주 기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성별		t	연령				F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현실갈등인식	2.95(.72)	2.83(.70)	1.14	2.91(.71)	3.02(.75)	2.88(.64)	2.71(.74)	1.91
지각된 차별감	3.08(.85)	3.11(.79)	-.26	3.20(.84)	3.03(.79)	3.11(.68)	3.04(.96)	.59
삶의 만족도	3.32(.85)	3.25(.79)	.64	3.32(.79)	3.17(.85)	3.25(.85)	3.40(.76)	.84

표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 기간별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9년 미만	9년 이상	F
현실갈등인식	2.78(.65)	2.89(.77)	3.00(.68)	2.88(.76)	3.23(.54)	.18
지각된 차별감	3.13(.87)	3.09(.82)	3.28(.80)	2.82(.65)	2.96(.68)	1.24
삶의 만족도	3.30(.89)	3.31(.73)	3.08(.91)	3.38(.69)	3.33(.90)	.60

간별로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전체 집단을 1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연구(예, 남북하나재단, 2014a; 남북하나재단, 2014b;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a;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b; 신미녀, 2010 등)의 관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과제 3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세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

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월평균 수입이 세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월평균 수입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연구과제 4와 관련하여 현실갈등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지각된 차별감, 현실갈등인식, 삶의 만족도 및 월평균 수입의 상관관계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삶의만족도	월평균수입
현실갈등인식	1.00			
지각된 차별감	.39***	1.00		
삶의 만족도	-.14*	-.30***	1.00	
월평균수입	.03	.00	.15*	1.00

* $p < .05$, *** $p < .001$

표 5.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1단계 삶의 만족	← 현실갈등인식	-.17	-.14	-2.41*	.043**
2단계 지각된 차별감	← 현실갈등인식	.42	.37	6.46***	.139***
3단계 삶의 만족	← 현실갈등인식	-.06	-.05	-.85	.109***
	← 지각된 차별감	-.28	-.27	-4.28***	

* $p < .05$, ** $p < .01$, *** $p < .001$

하고, 두 번째로 현실갈등인식이 지각된 차별감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며, 세 번째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지각된 차별감이 유의해야 한다. 이 때 현실갈등이 유의하지 않으면, 이 모형은 완전매개모형이 되고, 현실갈등이 유의하지만 효과크기가 감소했다면 부분매개모형이 된다. 따라서 Baron과 Kenny의 절차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중 어떤 모형이 자료와 잘 일치하는지 검증가능하다. 이 때 월평균 수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월평균수입을 독립변인으로 넣어서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17, p<.05$), 두 번째 단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이 지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42,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실갈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B=-.06, p>.05$),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B=-.28, p<.001$).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지각된 차별감은 경제적 수준을 통제된 이후에도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의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며, 매개의 형태는 완전매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는 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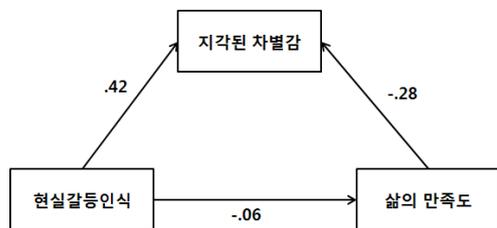


그림 2.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

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매개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해준다.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할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였다. PROCESS v2.13(Hayes, 2013)을 이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추출횟수는 1000번이었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한 결과, 차별감의 매개효과는 $-0.12(0.42 \times (-0.28))$ 이며, 95% 신뢰구간은 $-.20 \sim -.05$ 였다.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차별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변화하는 남한의 사회적 상황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다문화집단과 현실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기초 연구였다. 이주의 배경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이 각각 통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같은 민족이고 향후 통일 한국사회에서 남북한간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다문화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우대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다문화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다문화집단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문화집단에 대해 현실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소수집단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 세 주요변인에서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으며, 세 번째로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면, 첫째,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변인의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년 이상 되었고, 그 동안 입국의 이유, 탈북 후 남한입국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탈북자의 재복시 사회경제적 계층 등이 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경험이 배경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남한사회의 일상에서 느끼는 바는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자든 남자든, 연령이 낮은 높은, 남한에서 1년을 거주했던 그 이상을 거주했던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차별감은 유사한 영역의 유사한 수준일 수 있고,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영역이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영역, 그리고 각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수준 등이 유사할 수 있으며,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이라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고 사실상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갈등 인식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3점보다 약간 낮았고,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는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나타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실갈등인식의 인식수준은 약간 낮고, 지각된 차별감을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다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집단간 현실갈등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달리 아직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집단에 대해 현실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지 않으며, 소수집단간 갈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이들이 느끼는 차별감은 기존의 연구들(신미녀, 2010; 윤인진, 채정민, 2010; Ziemek, 200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남북하나재단, 2014)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의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현실적 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당연한 결과로 사회 내 다른 소수집단과의 갈등을 지각하게 되면 현실갈등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형성되므로 삶의 만족이 떨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의 소속원이라는 인식 역시 삶의 만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현실갈등지각 및 차별지각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고 주관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앞에서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조영아, 2011; Barry & Grilo, 2003; Bennett et al., 2005; Bodkin- Andrews, Seaton, Nelson, Craven & Yeung, 2010; Chae & Walters, 2009; Conover & Feldman, 1986; Corning, 2002; Crocker & Major, 1989; Croker, Cornwell & Major, 1993; Fischer & Shaw, 1999; Gee & Paradies, 2006; Gee & Walsemann, 2009; Jost & Banaji, 1994; Kaiser & Miller, 2001; Karlsen & Nazroo, 2002; Major, 1994; Noh, Beiser, Kaspar, Hou, & Rummens, 1999; Paradies, 2006; Pascoe & Richman, 2009; Ruggiero & Taylor, 1995, 1997;

Sanders-Phillips, et al., 2014; Seaton & Yip, 2009; Szalacha et al., 2003; Vedder, van de Vijver, & Leibkind, 2006; Gee & Walsemann, 2009; Williams, 2005; Wong, Eccles, & Sameroff,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현실갈등인식은 반드시 실제 경쟁상황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즉, 현실에서 경쟁 자체가 배제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집단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편견으로 발전하여 집단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Aronson & Gonzalez, 1988; Sherif, 1966)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향후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과 북한이탈주민이 심리적으로 상호 경쟁의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 서로 불편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염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주요 문제인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차별감이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실갈등을 많이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현실갈등인식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지각된 차별감을 통한 매개효과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현실갈등인식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남한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윤인진과 채정민(2010)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남한주민의 편견과 차별이

남한사회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 사회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소수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북한출신자들은 다른 이주배경의 소수집단에 대해 현실갈등인식을 하게 되고, 적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주배경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는 비록 그 영향이 의미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더 많은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향후 이 변인들을 함께 포함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간 관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차별감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국가 및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증가하게 됨에 따라 유사한 집단끼리 소수집단이 형성되고, 소수집단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주배경 집단간 갈등의 문제보다는 주류집단과 이주민집단, 또는 한국과 같은 민족정체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과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동독 출신들이 통일 후 기존의 자신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서독출신자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것이 단순히 열등감이 아니라 단기간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느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집단을 향해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기식, 2008).

둘째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가 산출된 만큼 한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 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부적절한 태도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현재에도 이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하기에,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 각각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경험들을 일반국민이 이해 및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이 심리·사회적응 수준의 지표 중 하나인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통일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출신주민과 다문화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본 기초적인 연구였다. 따라서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 등 몇 개의 단순한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현실갈등인식이 지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집단지위이론을 빌어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였고,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로써 첫째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니는 정체감(identity), 사회적 우월감 지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Pratto et al.,

1994), 제로섬신념(Zero-Sum belief)(Bobo & Hutchings, 1996), 다문화집단과의 관계 맥락에서 집단지위에 대한 인식 등, 보다 구체적이고 관련성 있는 변인들이 함께 분석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형성된 '다문화집단'을 하나의 개념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현실갈등을 느끼게 되는 집단을 구분하여 다문화집단 내의 집단별 심리적 현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갈등인식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다문화집단에 대한 현실갈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였으나 남한사람들과의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을 함께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본 연구는 소수집단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갈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각 소수집단들은 한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 경쟁의식을 느끼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협력의 요인을 산출해낸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다문화집단이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호인식 및 상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간 관계의 역동에 대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경빈 (200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 나원) 업무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 먼저온 미래(Marc Ziemek 위음). 서울: (주) 늘 품플러스. Konrad Adenauer Foundation.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129-153.
- 김병로 (20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석호 (2012).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2012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 결과부분 측정지표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북하나재단 (2014a).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4b).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박근석, 한덕웅 (2002). 영호남의 상대적박탈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01-40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a). 2013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b). 충청지역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미녀 (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1), 87-112(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미영, 김혜숙 (2003). 집단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59-179.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07-135.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계민 (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느끼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65-193.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인진, 길은배, 박영희, 엄홍석, 윤여상, 채정민 (2006). 새터민 여성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 송영호 (2012). 한국인의 다문화적 소수자집단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지형과 변화: 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결과 비교분석.(윤인진, 윤상우, 이소영, 김선엽, 조윤경, 송영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총서 2010-04.
- 이기식 (2008).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두, 백미현 (2014).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정책. *한국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윤인진, 황정미 위음). 아연동북아총서 20. 서울: 아연출판부.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차별경험이심리적

-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인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602 & docId=151715707&qb=67aB7ZWc7J207YOI7KO866+8IOuLpOusuO2Z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iLgpsySo0ssaljxlssssssG-137486&sid=1OVI4DIh9HRfxuMBaLV3vw%3D%3D](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602&docId=151715707&qb=67aB7ZWc7J207YOI7KO866+8IOuLpOusuO2Z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iLgpsySo0ssaljxlssssssG-137486&sid=1OVI4DIh9HRfxuMBaLV3vw%3D%3D)(2015. 6. 30).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정책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2015. 6. 20)
-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개발원 보고서 11-1240245-000014-10.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한국청소년개발지표연구 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Ziemek, M. (2009).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먼저 온 미래. 서울: (주) 늘봄플러스. Konrad Adenauer Foundation.
- Anderson, T. (1992). Comparative Experience Factors Among Black, Asian, and Hispanic Americans: Coalitions or Conflicts? *Journal of Black Studies*, 23(1), 27-38.
- Aronson, E , & Gonzalez, A. (1988). Desegregation, Jigsaw, and the Mexican-American Experience. In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ed P. A. Katz and D. A. Taylor, 301 - 14. New York: Plenum.
- Ayalona, L. & Gum, A. M.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lifetime discrimination, everyday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in three racial and ethnic groups of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5(5), 587 - 94.
- Baker, J, & Binham, C. (1991). Minority against minority. *Newsweek*, 117(20), 2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ry, D. T., & Grilo, C. M. (2003). Cultural self-esteem,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perception of personal and group discrimination among East Asi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 223 - 229.
- Bennett, G., Wolin, K., Robinson, E, Fowler, S., & Edwards, C. (2005). Perceived racial/ethnic harassment and tobacco use among African Americans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 238-340.
- Bobo, L., & Hutchings, V. L. (1996). Perceptions of racial group competition: Extending Blumer's theory of group position to a multiracial social contex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951 - 972.
- Bodkin-Andrews, G. H., Seaton, M., Genevieve F. Nelson, G. F., Rhonda G. Craven, R. G. & Yeung, A. S. (2010). Questioning the General Self-Esteem Vaccine: General Self-Esteem, Racial Discrimination, and Standardized Achievement Across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0(1), 1-21.
- Brondolo, E., Brady, N., Thompson, S., Tobin, J., Cassells, A., & Sweeney, M. (2008). Perceived racism and negative affect: Analyses of trait and state measures of affect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27(2), 150-173.
- Brondolo, E., Rieppi, R., Kelly, K. P., & Gerin, W. (2003). Perceived racism and blood pressure: A

-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5, 55-65.
- Cardarelli, R., Cardarelli, K. M., Fulda, Espinoza, A., Cage, C., Vishwanatha, J., Young, R., Steele, D., & Carroll, J. (2010). Self-reported racial discrimination, response to unfair treatment, and coronary calcification in asymptomatic adults - The north Texas healthy heart study. *BMC Public Health*, 10(285), 1-11.
- Chae, D., & Walters, K. (2009).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al identity attitudes in relation to self-rated health and physical pain and impairment among two-spirit American Indians/Alaska Nativ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S1), S144-S151.
-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eumc.int>.
- Conover, P. J., & Feldman, S. (1986). Emotional reactions to the economy: I'm mad as hell and I'm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95-126.
- Com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117-126.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Cornwell, B., & Major, B. (1993). The stigma of overweight: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70.
- Ellemers, N., & Bos, A. E. R. (2006). Social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and coping with the threat of position loss: A field study among native shop keepers in Amsterda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987-2006.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experimental model of inter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 699-724.
- Fischer, A. R., & Shaw, C. M. (1999). African Americans' mental health and perceptions of racist discrimin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acial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95 - 407.
- Gee, G., & Walsemann, K. (2009). Does health predict the repor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or do reports of discrimination predict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8, 1676-168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Jackson, J. W.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Record*, 43, 395-413.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uan, C.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March 2013, Volume XL, Number 1, 131-156.
- Kaiser, C. R., & Miller, C. T. (2001).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254-263.
- Karlsen, S., & Nazroo, J. Y. (2002). Rel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social class, and health among ethnic minority group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 624-631.

- Kessler, R. C., Mickelson, K. D., & Williams, D.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208-230.
- Major, B. (1994).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6, pp. 293-34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ellor, D. (2004). Responses to racism: A taxonomy of coping styles used by Aboriginal Australians. *Australi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56-71.
- Michener, H. A., DeLamater, J. D., & Schwartz, S. H. (1986). *Social psychology*.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Minescu, A. & Poppe, E. (2011). Conflict in Russia: Testing the group position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74(2), 166-191.
- Noh, S., Beiser, M., Kaspar, V., Hou, F., & Rummens, J. (1999).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93-207.
- Olzak, S., & Nagel, J. (1986).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Paradies, 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888-901.
- Pascoe, E., &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uggiero, M., & Taylor, D.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Ruggiero,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ampson, R. J., Morenoff, J. D., & Raudenbush, S. (2005). Social anatomy of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2), 224-232.
- Sanders-Phillips, K., Kliever, W., Tirmazi, T., Nebbiyy, V., Carter, T., & Kye, Heather (2014).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rug Use,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frican American Youth: A Pathway to Child Health Dispar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70(2), pp. 279-297.
- Sandhu, D. S., & Asrabalah,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1.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mitt, M., & Maes, J. (2002). Stereotypic ingroup bias as self-defense against relative deprivation: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309-326.
- Seaton, E., & Yip, T. (2009). School and neighborhood contexts, percept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8, 153-163.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zalacha, L. A, Erkut, S., Coll, C. G., Fields, J. P., Alarcon, O., & Ceder, I.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resilience. In S. S. Luthar (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pp. 414-4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 Brown, R.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35-250). London: Academic Press.
- Vedder, P., van de Vijver, F. J. R., & Leibkind, K. (2006). Predicting immigrant youths'adaptation across countries and ethnocultural groups. In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 P. Vedder (Eds.),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pp. 47-50). Mahwah, NJ: Erlbaum.
- Verkuyten, M., & Brug, P. (2003). Educational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disengagement among ethnic-minority and Dutch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 189-200.
- Williams, D. R. (2005). The health of U. S. racial and ethnic popu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60B, 53-62.
- Wimmer, A. (197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se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sm Studies*, 20(1), 17-41.
- Wong, C. A., Eccles, J. S., & Sameroff, A. (2003). Ethnic identification: The influence on Africans' and Whites' school and socio-economic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1197-1233.
- Zatate, M. A., Garcia, B., Garza, A. A., & Hitlan, R. (2004). Cultural threat and perceived realistic group conflict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Mexican immigra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99-106.

1 차원고접수 : 2015. 12. 14.

수정원고접수 : 2016.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6.

The Effect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Group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oo-Young Le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group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as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273 North Korean defecto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groups, perceived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 and background variables (sex, age, residence periods in South Korea). Results indicated, at first,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x, age, residence periods in South Korea for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group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the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groups, the more perceived discrimination, but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Third,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uture study topics relating to this area were suggested.

Kyewords : North Korean defector, multicultural group, realistic conflict, perceived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